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

Anti-Christian Mother's Experience and Changes in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방은영 (Eunyoung B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anti-Christia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In this study, qualitative research using narrative inquiry method was conducte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and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anti-Christian mother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the experiences of anti-Christian mother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atisfaction with high-level Bible rhythm play classes based on instructor information', 'Curiosity and passion when entering Christianity! Internal struggle to avoid forced avoidance', 'Self-confidence and determination that antipathy toward the church and Christians will not change', and 'Confronting uncomfortable feelings to maintain children's friendships and fellowship with mothers'. Second, the changes of the anti-Christia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Bible rhythm play class for infants were shown in three ways: 'becoming assimilated into the power of the Bible rhythm play that makes them forget even the bad memories that made them become anti-Christians', 'thinking about God and my problems that feel stronger beyond child education', and 'God who knocks on my closed heart! Moving forward with an irresistible attrac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anti-Christian mothers participated with the purpose of educational achievement for their infant children in the physical space of the church, an effective evangelism strategy targeting anti-Christians beyond non-Christians is needed based on this.

Key words: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anti-christian mother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lovelybey@hanmail.net

I. 서론

영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적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영아를 위해 사랑으로 가장 최선의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최초의 교사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올바르게 배우게 하는 역할모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건강한 양육 가치관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지니게 되는 하나님 개념이나 신앙인으로서 삶의 태도 형성에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De Roose et al., 2004). 이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자인 부모의 양육가치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구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Hertel & Donahue, 1995).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Hyde(2004)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와 자녀의 신학적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역할모델이 될 경우,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경건의 실천,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주어 창조자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개념을 일찍부터 자녀에게 전수하고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비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사랑을 매일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즉, 비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들은 똑같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정서적, 물질적 영역을 포함한 전 인격적 돌봄과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세속관점에 기대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 일상에 깃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로 신앙을 계승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교육과는 분명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방미석, 2017).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거듭남의 체험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현재는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안티 크리스찬(Anti-Christian)으로 명명할 수 있다. 장혁재(2020)는 이러한 ‘Anti-Christia

n’에 대해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또는 ‘그리스도교 반대자’라고 강조하면서 신앙의 근거(根底)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정이 상하여 떠난 자들이 바로 Anti-Christian이며 방황하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빈·정재영(2017)은 내집단(inner circle)

에 대한 실망감이나 반감 등이 제도종교의 이탈로 연결되는 것을 탈 종교화라고 명명하면서 ‘Anti-Christia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Anti-Christian’은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무종교인 집단에서 또 한 번의 분화를 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단순히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서 Anti-Christian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는 기독교 신앙과 에클레시아(ecclesia)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오히려 더욱 폐쇄적인 공동체라고까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는 곧 Anti-Christian들이 지니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 감정의 포화상태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갖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를 상기시킨다. 기독교인들은 Anti-Christian들을 회복의 길로 안내하기보다 오히려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은지, 이들에 대해 위축감 또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박경수, 2010).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김덕영·송재룡(2014)은 Anti-Christian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다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는 일이 예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Non-Christian)을 전도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실제로 Anti-Christian들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좌절을 경험한 경우, 그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반감, 또는 탈종교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반기독교적 정서를 지니고 Anti-Christian으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 감정을 가지고 기독교나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사회문화에 본인과 자녀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고스란히 나타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즉,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자녀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기독교인과 어울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Anti-Christian 부모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한 부정과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들을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감정이 상하여 떠난 자들 그 상태로 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미약하나마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명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곧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강하게 거부하기에 이른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복음 전도의 방법을 모색해

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2021)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였던 전도방법들은 다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강제적이거나 침입하는 접근 방식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무례한 종교로까지 여겨지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일방적이라고 여겨지기 쉬운 전도 방식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전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Anti-Christian 부모들도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 자녀를 키우는 한가정의 부모이며 그들 또한 모든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과 자녀의 건전한 사회관계 형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이 재원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영유아는 또래와 어울려 지낼 뿐 아니라 교육기관 밖에서도 광범위한 또래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 또한 자녀를 매개로 부모 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형식적 부모 커뮤니티(communitiy)가 형성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경화 외(2008)는 자녀발달을 위해 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서는 자녀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연결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nti-Christian 어머니도 기독교인 어머니와 같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 및 부모 관계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녀교육과 관련한 동류의식을 형성하게 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의 결과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다(Christensen, 2002 ; McIntoch, 2002).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한 교육, 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양육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뤄왔다(이석철, 2016). 세부적으로는 예배를 통한 부모교육(김성경, 2014 ; 이미진, 2020), 목회자 중심의 부모초청 강의 및 세미나(구현주, 2024 ; 문은정, 2024 ; 최민숙, 2017), 양육정보지 활용(이경희·이영주, 2001), 부모와 영아가 함께하는 놀이식 활동(이지형, 2009 ; 황정연, 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모참여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 책임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포함해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전도의 방법으

로 문화를 통한 복음 전도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접촉점을 제공해 주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장혁재, 2020). 실제 현대인들의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유를 가치롭게 여기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매개로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는 전도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형준, 2021).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 참여는 큰 관심사로 일련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태도나 신앙계승을 다룬 연구들(방미석, 2017 ; 이영주, 2006),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룬 김미라(2006)의 연구 정도가 이루어졌을 뿐 비기독교인이나 Anti-Christian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매개로 한 기독교 문화공유나 전도의 과정에서 나타난 신앙회복과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인 가정의 어머니와 영아뿐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지역사회 어머니와 영아, 그리고 심지어 반기독교 정서를 지닌 어머니와 영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식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함을 통해 기독교 문화공유와 전도의 과정에서 나타난 Anti-Christian 어머니의 신앙회복과 변화를 심도있게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말 리듬이란 언어와 리듬이 조합되어 음정없이 리드미컬하게 노래처럼 부르는 방법을 말한다(방은영,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말 리듬을 활용한 놀이가 영유아의 언어발달(김지순, 2017), 사회·정서발달(김영림, 2019 ; 김지연, 2019), 놀이성(한은미, 2018)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왔다. 영아기의 놀이는 영아로 하여금 시각, 청각과 함께 언어와 신체의 감각을 조직화함으로써 수많은 감각통합을 이끌어내도록 활성화 시킨다(Ayres, 2006). 따라서 영아들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합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교육적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곧 영아에게 예전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성숙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큰 재미와 만족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는 특히 성인과 영아가 함께 할 경우, 영아의 즐거움과 즉각적인 반응 및 음악적 성장을 엿볼 수 있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방은영, 2020). 또한 전은숙(2009)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영아가 최초 대상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정서로 작용하고 부모의 역할이 영아기 신앙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신앙 성장을 위한 놀이식 교육의 일환으로 성경 이야기를 주요 내용

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놀며 배울 수 있는 말 리듬 놀이를 구성하고 기독교인 부모뿐 아니라 지역사회 영아와 부모, 그리고 반 기독교 정서를 지닌 Anti-Christian 어머니와 영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이라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떠났던 Anti-Christian 어머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가를 그 경험과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교회학교 영아부 주관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자신의 영아기 자녀와 함께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내러티브 탐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참여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시간의 연속성에 따른 관계적 탐구의 방법이자(지은경, 2021) 한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2017).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에는 살아내기(living), 이야기하기(telling),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다시 살아내기(reliving)가 제시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 기독교 감정에 갇혀 살던 Anti-Christian 어머니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출발점을 제공하였고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의미를 탐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시점 현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에 반감을 지니고 있는 Anti-Christian 어머니로 J교회 영아부에서 개최한 토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자녀를 참

여시킨 어머니이다. 참여 계기는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의 같은 2세반에 재원 중으로 J교회 영아 부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인 친구 장00 영아 어머니의 권유로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는 수업 시작 일주일 전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전체 8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면담에 참여하여 일반적 배경을 묻는 설문지 작성하기 및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Age	자녀 수	영아 월령	신앙경력	어머니 직업 유무
어머니	31	1	25개월	친구전도로 중학교 때 2년간	L전자 사무직 직원

앞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 어머니는 연구 시작 전 2024년 5월 초 J교회의 2세 영아 대상 토요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영아와 함께 참여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로 자녀 수는 1명이며 연구 시점 영아의 월령은 25개월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중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2년간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교회 남자 선배와의 이성 문제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교회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 자체에도 비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인 장00 영아 어머니와의 친분을 계기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소개받고 참여를 권유받게 되었으며 자녀의 음악발달에 관심이 많았기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역량에 따른 수준 높은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의 출발점

본 연구는 2024년 J교회 영아부 주일예배 후 실시한 본 연구자의 영아와 부모들이 함께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 특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말 리듬에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기를 노랫말로 재구성해 음정 없이 리듬에 맞춰 노래처럼 부르는 놀이식의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처음 접해본 영아부 어머니들 중 몇몇이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수업이 교회에서 주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면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며,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등을 위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구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성경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11년 교사경력을 지녔으며 대학에서 음악전공 후 대학원에서 음악교육과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유아음악교육, 동작교육, 예술교육 관련 다수의 책을 출판해 왔으며 지난 20여년 간 관련 주제의 연구논문 다수 게재 및 특별히 말 리듬 분야의 창작자 및 전문강사로서 관련 도서출판 및 교사연수 등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현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유아교육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전공 및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성경 말 리듬 전체의 창작과 가정연계 성경 말 리듬 놀이 자료를 교재나 음원 등으로 제공해 줄 수 있었다.

3)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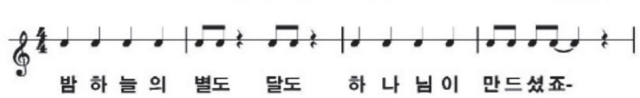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규민(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영적 영역 및 지적·정서적·의지적·도덕적인 부분을 다루는 정신적 영역, 그리고 육체적 건강과 경제활동,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물질적 영역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 리듬 놀이를 구성하였다. 모두 10회차로 이루어진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는 창조자,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 가정의 기독교 정체성과 정서적, 물리적 영역까지를 포함하였다. 더 나아가 영아 눈높이에서 쉽게 부르고 놀이하며 일상에서 반복해서 즐겨 부를 수 있는 말 리듬 놀이를 구성하여 영아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은 2024년 5월 1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2024년 7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업 시간은 매회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요 일정과 내용 및 교수-학습 자료 및 세부 시안(사례)은 다음의 <표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요 내용 및 교수-학습 자료

회 기	일시	성경 말 리듬 주제	주요 내용	교수-학습 자료
1	2024/ 05/11	하나님이 나(00)를 만드셨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이름은? (자기소개 말 리듬 게임 하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말 리듬 놀이와 악기 연주하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말 리듬 놀이하기 & 신체인식과 표현하기) 	아기인형, 동물 모형들, 소품 타악기들(에크셰이커, 탬버린,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리듬 막대)
2	2024/ 05/18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봐요(말 리듬 놀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 이야기 중 말 리듬 참여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예요(말 리듬, 노래 부르기) 	감정 카드, 동화극본, 리듬 타악기(리듬막대), 피아노
3	2024/ 05/25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하늘의 별도! 달도!(말 리듬 놀이하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말 리듬 놀이 반복) •첫째날, 둘째날...하나님은? (스토리텔링 하기) •내 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음악감상과 신체표현 놀이하기) 	소품 타악기들 별, 달 모양 머리띠/ 그림 자료, 사진자료, 음악곡(로버트아브람슨(Stop & Start)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서곡'
4	2024/ 06/01	출발!! 천국 열차 타고 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국은 어디에? (말 리듬 놀이하기) •교통기관을 알아요(말 리듬 놀이 & 교통기관 장난감 활용 놀이 / 신체 표현하기) •음악곡에 맞춘 기차놀이 하기 	교통기관 장난감들, 핸드드럼,음악곡(작자미상: '기차타고')
5	2024/ 06/08	하나님 사랑을 나눠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 :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야기 동화 들려 주기 / 이야기 말 리듬 참여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예요(말 리듬, 노래 부르기) •사랑은 나누는 것(하트 그리기 & 말 리듬 놀이하기) 	시트지, 가위, 에그셰이커, 피아노, 트라이앵글
6	2024/ 06/15	하나님이 계신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이 계신 곳”(말 리듬 놀이하기)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 •“난 느낄 수 있어요!”(말 리듬 놀이) •음악곡에 맞춘 신체 표현하기 	메탈로폰, 리듬막대, A4용지 색연필, 음악곡(쇼팽:강아지 왈츠)
7	2024/ 06/22	매일 매일 기도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도하는 예쁜 손(말 리듬 놀이) •나도 기도할 줄 알아요(말 리듬 놀이 & 신체 표현하기 표현하기) •똥똥똥! 기도하는 시간이에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 & 이야기 말 리듬 놀이 참여하기) •음악곡에 맞춘 시계 말 리듬 부르고 신체 시계 표현 놀이하기 	핸드드럼, 핸드셰이커, 리듬막대, 음악곡(앤더슨: 싱크페이드 클락) 시계모형

8	2024/ 06/29	내 입술이 찬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하는 내 입술’(말 리듬 부르기) • 점점 크게! 점점 작게!(즉흥 신체표현과 악기 연주하기) • 내 입으로(눈으로, 손으로, 두 발로, 엉덩이로!...) 찬양해요 후빠빠!(즉흥 신체표현과 말 리듬 놀이하기) 	핸드드럼, 스카프 신체 그림 카드 소품 타악기 (에그셰이커, 탬 버린, 트라이앵글, 마라카스 등)
9	2024/ 07/06	감사해요 하 나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보다는 감사!(말 리듬 놀이하기) • 감사할 땐 이렇게(엄마와 표정 놀이하기) •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 • 감사 릴레이 게임하기(즉흥 극 놀이하기) 	다양한 얼굴 표정 그림 카드, 핸드벨, 파라슈트
10	2021/ 07/13	사랑해요! 축복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해요! 축복해요!(말 리듬 놀이와 노래 부르기) • ‘축복하는 손’(즉흥 신체표현 놀이하기) • 사랑을 나눠요(이야기 동화 들려주기와 소품(스카프) 활용 말 리듬 놀이하기) 	피아노, 신체 그림카드, 리본막대, 스카프

<표 3>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세부 시안(3회차)

단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요 내용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영아 라포형성을 위한 말 리듬 하이파이브 인사 나누기(질문-대답 형식의 주고 받기 놀이) “씩씩한 000! 네, 멋진 000! 네!” - 이름을 불러 준 영아가 ‘네’ 라고 대답하면서 동시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품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품 타악기들 (에크셰이커, 마라카스 리듬 막대, 트라이앵글, 귀로 등..)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리듬 놀이하기 - 아래의 말 리듬을 교사 선창으로 시범 보인 후 영아 어머니들과 함께 말 리듬 가사를 보며 리듬에 맞춰 불러본다. <p style="text-align: center;">밤 하늘의 별도! 달도! 방은영 작사 곡</p>  <p style="text-align: center;">밤 하 늘 의 별 도 달 도 하 나 님 이 만 드 셴 조-</p>  <p style="text-align: center;">반 짝 반 짝 별 둥 글 둥 글 달 하 나 님 이 만 드 셴 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들 중 두명을 선정해 머리에 각각 별과 달 모양 머리띠를 씌운 후 말 리듬 다섯째 마디의 노랫말을 개사하여 영아의 이름을 넣어 다음과 같이 불러 준다. 예) ‘반짝반짝 00별’, 또는 ‘둥글둥글 00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품 준비: 별, 달 모양 머리띠(각 1개씩)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번 반복하여 부르며 모든 영아들이 한번씩은 이름을 넣어 불러 볼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말 리듬 놀이 반복하기) -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 리듬을 다시 불러보며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영아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준비한 모형 장난감, 사물 그림자료, 사진자료 등을 살피고 설명하며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첫째날에, 둘째날에...하나님은?(음악에 맞춘 스토리텔링 하기) - 하나님 창조의 순서를 날짜별로 소개하되 준비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하여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 교사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 달과 별, 동물, 사람 등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 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음악감상과 신체표현 놀이하기) -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를 외치며 영아와 어머니들이 영아의 이름을 넣어 외치며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사람 이외에 창조하신 것들을 서로 말해 보고 그것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형 장난감, 사물 그림자료, 사진 자료 등 •음악곡: 로버트 아브람슨 'Stop & Start' •음악곡: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서곡'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회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시작 전 2024년 5월 1일에 연구참여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반적 배경 및 수업에 대한 기대를 묻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매주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직후에 연구참여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총 10회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A4용지 29장 분량이었으며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관련한 문단 및 문장분석(김현주·조형숙, 2006)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 평가작업(member checking)의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으며 최종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러티브 탐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분석 및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자녀의 친구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 의 4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Anti-Ch

ristian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에 동화되어 가기’,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의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

1)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자인 교수자 정보를 미리 전해 들었던 점이 수업 참여를 결정하는데 작용하였음을 말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성경 내용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조급은 불편한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준 높은 수업으로 인해 대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과 내용에 있어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잘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 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이번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의 경력을 보고 내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중략)...교회에서 이런 수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반 기독교적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으로 작용한 거 같고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2024년 5월 11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함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문득 되살아나는 기독교인이었을 때의 호기심 어린 기억들과 열정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져 억지로나마 회피하려 하고 내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노방전도를 위해 토요일 오후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훈련도 받았던 기억들... 찬양을 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추억 등.. 중학교 시절의 교회 생활이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그 이후 내 삶에서 느낀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잘 떠났다!” 와 같이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잡게 되었고 너무 후련하기까지 했어요. 이번에 성경 말 리듬 놀이에 참여하면서 가끔씩 ‘하나님’ 의미가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이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회피하려 마음 속으로 싸우며 노력하고 있어요.”

(2024년 6월 1일 심층면담 내용 중)

“오늘 수업에서 아이와 함께 부른 말 리듬 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부를 때 잠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문득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무뎌진 나의 초심을 일깨우는 뭔가 야릇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중략)...그렇다고 나의 이미 비뚤어진 생각이 변화될리는 없을 거 같고...(중략)...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겐 다시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 위로를 해 보면서 몇번이고 부정하고 있어요.”

(2024년 6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3)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시작 전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자신이 오직 자녀를 위해서만 말 리듬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자신은 교회와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감 때문에 중학교 이후 Anti-Christian으로 살아왔으며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었던가를 말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있을 기적과도 같은 회심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임에 대한 강한 자기 확신과 다짐을 나타내 보였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았고 나를 실망시켰던 사람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교회라는 곳에 와있다니...(중략)...아이 때문에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안 좋은 기억들을 마주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중략...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회심과 같은 일은 내게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다짐해요.”

(2024년 5월 11일 심층면담 내용 중)

4)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참여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구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 차원에서 결정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중 느끼게 되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마주해야 함을 미리 예측해 왔고 이미 마주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아이 친구 엄마의 권유가 가장 결정적이었구요, 무엇보다 우리 00의 음악놀이 참여에 의미를 두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의 친교 유지라는 이유로 결정을 한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기게 될 불편한 감정들을 마주하더라도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4년 5월 18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

1) ‘Anti-Christian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에 동화되어가기’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Anti-Christian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뒤로하고 자녀 때문에 수업에 참여했다고 자기방어를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 즉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하나님 개념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으며 자신도 점점 동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장담했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성경 말 리듬 놀이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악담까지 하던 나였는데...(중략)...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에 내가 점

점 동화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2024년 5월 25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자극하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점차 느끼게 되어감을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 복음을 주제로 이루어졌던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자신의 자녀교육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넘어 자신을 향해 더 가까이, 그리고 강하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아이와 말 리듬 놀이를 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놀이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했어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서인가? 고개를 가우뚱하다가도 뭔가 내 마음을 흔드는 묘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은 지난주 말 리듬 놀이 수업 중에도 마음이 요동치듯 움직임을 느꼈었는데… 중략… 내가 그렇게도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2024년 6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수업이었어요. 무언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강한 현타가 올 정도로 말이지요. 내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분명 내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존재감이 내 주변을 확~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던,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중략… 드디어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2024년 6월 22일 심층면담 내용 중)

3)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

Anti Christian 어머니는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반감과 불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져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상하리만큼 자신이 마치 익숙한 곳에 와 있는 것 같이 교회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기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이 놀라울 뿐이며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이끌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아이 때문에 교회에 다시 왔고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저 아이 때문에 참석만 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억지 방어하려했는데...(중략)...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고 중학교 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록새록 느껴졌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어느샌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음으로 확신이들어요. 정말 놀라워요” (2020년 6월 29일 심층면담 내용 중)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의 4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참여자인 Anti-Christian 어머니는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났었고 이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깊은 반감을 지닌 채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Anti-Christian 관련 선행연구들(박관희, 2016 ; 임영빈·정재영, 2017 ; 장혁재, 2020)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불거진 윤리적, 도덕적 모순, 성도 간의 치열한 갈등 구조, 믿는 자들의 추악한 생활양식에 환멸을 보고 떠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앙의 근저(根底)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정이 상하여 떠난 자들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동시에 반감을 지니고 사는 과거에 갇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록 자녀를 위함이었고 주변의 권유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Anti-Christian 어머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다시금 교회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와 그가 지녔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반감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매우 어색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Anti-Christian 어머니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과정에서 결코 회심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심과 경계심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혼란스러움과 뭔가 흔들려 깨우심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즉,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고귀하고 실증적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돌이킴을 위한 전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점에서 결코 우리 일상의 삶이 그 본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양의 돌이킴을 위해서는 그 자신이 소중한 내적 싸움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공동체 문화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도록 손 내밀어야 주어야 함을 인식시켜 준다.

둘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Anti-Christian 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위에 동화되어가기’,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의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상만(2009)이 오이코스 관계전도법에서 강조했던 즐거움 과정에서의 경험이 낳은 결과를 상기시킨다. 즉,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경험한 영아와 어머니의 즐거움은 기독교인 공동체 문화를 매개로 하는 전도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영아와 어머니들이 경험한 놀이의 즐거움, 또래 관계 형성, 영아-어머니 애착 증진, 다양한 창조적 도전과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개념 알아가기의 즐거움은 선행연구들(김지순, 2027 ; 김영립, 2019 ; 방은영, 2020)에서 밝힌 말 리듬 놀이 수업의 효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오감자극을 통한 방법이 영아 신앙교육에 효과적이었을 밝힌 황은실(2015)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경 말 리듬 놀이가 영아와 어머니로 하여금 함께 성경의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고 듣게하며 춤추고 스킨십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영아를 위한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곁에서 함께 지켜보는 Anti-Christian 어머니에게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 가도록 작용하였고 지극히 초심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처음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의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키도록 작용하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Anti-Christian 어머니가 강하게 거부하고자 했던 돌이킴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시고 열음이 녹아내리듯 점차 반 감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주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Anti-Christian 어머니가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 기독교 공동체 문화가 주는 즐거움의 분위기를 경험한 것을 넘어 점차 자신을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일수록 논리성이나 직접적인 설득의 방법보다 감각과 감성적 접근의 복음 전도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사랑과 거둬냄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돌아서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기까지 하던 Anti-Christian 어머니가 그를 향해 손 내밀어 준 교회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회복하심의 증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회를 떠나 반감을 갖고 살아가는 Anti-Christian들이 점점 저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누리는 문화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해 경계심을 낮추는 복음전도의 방법이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 한 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해 신앙경력이나 현재 신앙생활 정도에 따른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서의 경험과 변화를 살피는 다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인 Anti-Christian 어머니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 과정에서 실시한 심층 면담을 통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반감정과, 완고함, 그리고 무지함으로부터 점차 회복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오게 됨을 고백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회복과 변화가 연구 종료 이후 믿음 생활에서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지속되고 발전되어 나가는지를 살피는 질적 연구도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처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반 감정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구현주 (2024). **대안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 성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국환 역 (2004).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종교교육**. Hyde, K. E. (1990). *Relig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덕영·송재룡 역 (2014). **세속화냐 탈 세속화냐?**. Berger P. L. (Ed.)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미라 (2006). **부모의 신앙유무가 유아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성경 (2014). **교회 내 영유아 부모들의 주일예배 회복 방안 : 주일예배의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영림 (2019). **인성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영아의 놀이성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지순 (2017). **성경 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지연 (2019). **생활 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현주·조형숙 (2006).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의 특질: 교사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43-68.
- 김형준 (2021). **문화를 활용한 복음 전도 방안 연구 : 총신교회 문화전도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문은정 (2024).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초등학생 부모의 부모효능감, 정서조절, 공감능력, 영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교.
- 박관희 (2016). **공적예배에서 생활예배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융합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박찬용 (2016). **청년 신자의 탈교회화 과정 연구: 한국개신교 사례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방미석 (2017).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계승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 방법**.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 방은영 (2016). **음악활동의 실제에 초점을 맞춘 영유아음악교육**. 고양: 공동체.
- (2020). **또래 협력적 말 리듬 놀이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신체활동즐거움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4(2), 247-269.
- 이경선 (2018). **가나안 성도 교회이탈 특징과 종교 성향에 따른 효율적인 전도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이경화·김연진·고진영 (2008). **(결혼과 가족관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규민 (2013). **세계화 시대를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향성**. **기독교교육논총**, 33, 145-173.

- 이미진 (2020). **기독교 부모교육을 위한 교회학교 영아부 공과의 재구성**.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이상만 (2009).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 이석철 (2016). 부모의 인식변화와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부모교육. **기독교교육정보**, 51, 163-185.
- 이수환 (2011). **21세기 선교와 종교현상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영주 (2006).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 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지형 (2009). **영아부 예배의 소그룹 모임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 :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에 의하**
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임영빈·정재영 (2017). 한국 무종교인에 관한 연구: 무종교인과 탈종교인의 분화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7(2), 65-93.
- 장혁재 (2020). **한국기독교 현실 재고와 비기독교인 전도를 위한 문화선교 방향성연구-기독교 대학 채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전은숙 (2009). **영아기 신앙발달을 위한 촉진적 환경의 기독교 교육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지은경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1), 103-124.
- 최민숙 (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학교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한은미 (2018).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말 리듬 놀이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황정연 (2015). **신앙교육의 일환으로서 영아기 어린이전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Ayres, A. J. (2006). **감각통합과 아동**. (김경미 외 역). 서울: 군자. (원서 2005 출판)
- Christensen, D. L. (2002). *Word Biblical Commentary Deuteronomy*. Texas: Word Book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S. & King M. (Ed.) (1978).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 Roose, S. A., Idema, J. & Miedema, S. (2004). Influence of maternal denomination, God concepts, and child-rearing practices on young children's Godconcep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3, 4, 519-535.

Hertel, B. R. & Donahue, M. J. (1995). Parental influences on God images among children: Testing Durkheim's metaphoric parallelism.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186-199.

McIntoch, D. (2002). Deuteronomy. in Anders. M. (Ed.) (2002).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Omery, A. (1983). Phenomenology :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5(2), 49-63.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

Anti-Christian Mother's Experience and Changes in Infant Bible Rhythm Play Class

방은영 (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과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기술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Anti-Christian 어머니의 경험은 '교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대한 만족', '기독교 입문 때의 호기심과 열정! 억지 회피를 위한 내적 싸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불편할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다짐',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어머니들과의 친교 유지를 위해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기' 의 4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수업에 참여한 Anti-Christian 어머니의 변화는 'Anti-Christian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안 좋은 기억들조차 잊게 하는 성경 말 리듬 놀이의 파워에 동화되어가기', '자녀교육을 넘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내 문제를 고민하기', '나의 닫힌 맘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나아가기' 의 3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Anti-Christian 어머니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비록 영아기 자녀를 위한 교육적 성취에 목적을 두고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비기독교인을 넘어 Anti-Christian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전도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영아, 성경 말 리듬 놀이, 안티 크리스찬(Anti-Christian)